

국립중앙박물관 유물 탐험 활동지

대표 유물 하나를 골라 시대와 쓰임, 궁금한 점을 아이 말로 남기기 위한 활동지입니다.

부모 목표: 아이가 설명을 모두 외우기보다 유물 하나를 관찰하고 자기 말로 이유를 말하도록 도와주세요.

1. 현장에서 체크하는 미션카드

- ☐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유물 찾기
- ☐ 지금도 쓰임이 비슷한 물건 찾기
- ☐ 왕이나 나라와 관련된 유물 찾기
- ☐ 무늬가 가장 인상적인 유물 고르기
- ☐ 집에 와서 설명하고 싶은 유물 하나 정하기
- ☐ 오늘 배운 시대 이름 하나 말하기
- ☐ 유물을 만든 사람 상상하기
- ☐ 보존해야 할 이유 생각하기

2. 아이가 고르는 오늘의 한 장면

오늘 가장 오래 보고 싶었던 장면

그 장면을 기억하고 싶은 이유

국립중앙박물관 도슨트 관찰노트

방문 후 집에 돌아와 아이와 함께 천천히 적어보세요. 맞고 틀린 답보다 아이의 말과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

3. 생각을 여는 질문

- 이 유물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을까?
- 옛날 물건과 지금 물건은 어떤 점이 같고 다를까?
- 사람들은 왜 이 유물을 지금까지 보존했을까?
- 박물관은 과거를 보관하는 곳일까,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곳일까?

4. 관찰 기록

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

집에 와서 다시 해보고 싶은 것

아이 한마디

5. 집에서 이어가기

☐ 오늘 본 유물 하나를 그리고 이름 붙이기

☐ 유물의 쓰임을 세 문장으로 설명하기

☐ 시대 이름을 연표에 붙여보기

☐ 우리 집 물건 중 100년 뒤 남기고 싶은 것 고르기

보관 날짜를 적어 파일에 모아두면 아이의 관찰력과 표현력이 자라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.